



발행인 허재준
편집인 김유빈
편집교정 이승주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83
FAX 044-287-6089

발행일 2024년 8월 30일

2024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044-287-6603(jwkim@kli.re.kr)

2024년 상반기 노동시장은 코로나19 이후의 강한 반등세가 약해지며,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취업자 증가폭은 2023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상반기에는 22만 명 수준에 그쳤다. 남성은 고용률이 감소했고, 여성은 고용률 증가폭이 축소됐다.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청년층 고용이 감소한 반면, 60대 고용은 높은 증가폭을 유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업 고용 부진이 심화됐다.

2024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약 18.2만 명 증가하고,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62.8%,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 고용 부진은 하반기에도 지속되고, 제조업 경기호조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으로 대면 서비스업 고용 규모도 확대되기 어렵다. 거시경제적 하방 위협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유지하고, 건설업, 도소매업 등 고용 부진이 예상되는 업종은 고용 여건 모니터링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I. 2024년 상반기 노동시장 개관

2024년 상반기는 코로나19 이후 상당 기간 이어진 강한 노동시장 회복세가 장기 추세로 복귀하는 경향을 확인한 시기였다. 2023년 상반기 37만 명 수준이었던 취업자 증가폭은 당해 하반기에 28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22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5월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명대 이하로 낮아졌고, 6월에도 전월 대비 소폭 확대되는 데 그쳤다. 더

불어, 실업자 증가폭은 확대되고, 비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이 축소됐다. 2023년 양적지표를 통해 나타났던 고용의 긍정적 신호들이 2024년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 노동시장은 성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남성 고용률은 감소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증가했다. 2023년 이후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성 고용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위주의 취업자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그 증

2분기 취업자 증가폭 둔화

〈표 1〉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취업자	372	283	220
실업자	-77	-15	59
비경황	-154	-115	-113
고용률	0.6	0.4	0.3
실업률	-0.3	-0.1	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KOSIS.

가 수준은 감소하는 추세로, 여성 고용률의 증가폭은 2023년 상반기 1.4%p에서 2024년 0.7%p로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의 고용 부진과 고령층의 고용 증가세가 뚜렷하게 대비되어 나타났다. 청년층은 인구효과에 의해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60대 취업자 증가폭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전 연령대 중에 가장 큰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업 고용 부진이 심화됐다. 제조업은 반도체 수출과 생산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업황 부진에서 벗어났지만, 고용은 반등하지 못했다. 건설업 고용은 건설 경기 둔화로 인해 일용직 외 상용직 근로자까지 감소하면서 취업자 감소폭이 분기별로 확대됐다. 서비스업 고용도 예외는 아니다.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도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노동시장의 부문별 상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본다. 먼저, 미취업자 동향을 통해 경제활동참여 양상을 점검한다. 다음으로, 취업자 동향은 연령대별,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이후 결론에서는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에 기반하여 하반기 고용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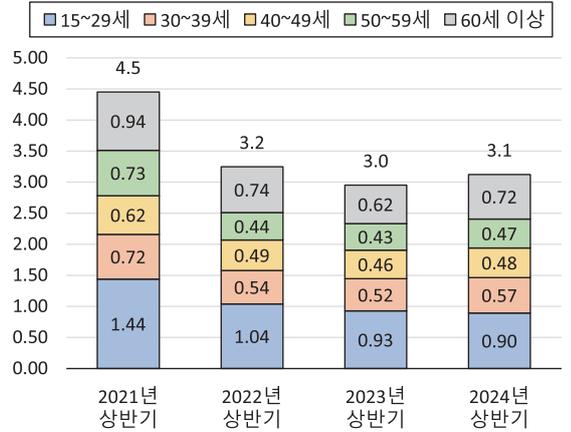
II. 2024년 상반기 부문별 노동시장 평가

1. 중고령층 중심으로 실업률 증가

2024년 상반기 실업률은 3.1%로 전년동기대비

〈그림 1〉 전체 실업률에서 각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p)



주: 연령대별 실업자 수를 전체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누어 실업률에서 각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0.1%p 증가했으나, 2023년 상반기 실업률이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을 고려하면, 현재의 실업률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실업률의 연령대별 비중은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늘었다. 그중 60세 이상의 실업률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4년 상반기에 증가한 실업자 5.9만 명 중 실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실업자는 3.1만 명이다.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 비대면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종사했던 전직 실업자가 증가했다.

전직 실업자의 퇴직 사유를 살펴보면 개인 여건보다는 직장의 휴·폐업, 정리해고, 사업부진 등 직장 여건에 따라 퇴직한 전직 실업자가 1.6만 명 증가했다. 임시직이거나 계절적 업무가 종료되어 실업자가 된 사람은 1.5만 명 늘었다.

2. 쉬었음 중 '취업비희망자' 증가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이하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기대비 11.3만 명 감소했다. 활동상태별로 살펴보면, 출생아 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로 '육아 및 가사'를 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8.6만 명 감소했다. 반면 고령인구 증가로 '연로'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는 늘었다. '쉬었음' 인구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1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전직 실업자 증가

'쉬었음' 인구 2분기 증가 전환

분기까지 감소했으나 2분기 들어 다시 증가했다.

청년 비경활인구는 11만 명 감소했다. 특히 '통학(정규교육기관)'과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 비경활인구가 감소했다.

2024년 상반기 '쉬었음' 인구 244.4만 명 중 지난주에 직장을 원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취업비희망자'는 80.7%였다. 취업비희망자 비율은 지난 4년간 모든 연령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표 2〉 '쉬었음' 인구 중 취업비희망자 비율

(단위: %)

	2021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전체	69.3	73.8	80.3	80.7
15~29세	63.1	71.6	76.8	76.4
30~59세	63.1	67.3	74.6	76.3
60세 이상	77.8	80.7	86.4	86.2

주: 비경제활동인구 중 현재 활동상태를 '쉬었음'으로 응답한 자 중에서 '지난주에 직장을 원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원하지 않았음'으로 응답한 자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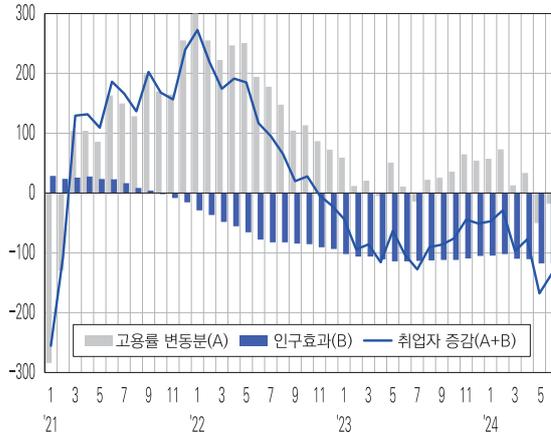
3. 청년 고용의 상대적 부진

2024년 상반기 20대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9.2만 명 감소했다. 취업자 감소폭이 늘었지만, 20대 취업자 감소분 중 상당 부분은 인구효과에 의한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 인구효과에 의해서만 20대 취업자가 11만 명이 감소했다. 고용률은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0.5%p 증가했지만, 월별로 보면 5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하다.

20대 초반 청년층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 증가는 2024년 상반기에도 계속됐다. 그러나 그 외 산업에서는 대부분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컸는데, 이는 주로 여성이 감소한 결과이다. 20대 초반 여성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고용비중이 높은 간호직종의 취업자 감소가 관찰되고 있다. 이 산업에서는 인구효과를 제거하더라도 여성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청년 여성 간호인력 고용 상황을 중심으로 여성취업자 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

〔그림 2〕 20대 취업자 수 변화 요인 분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쉬었음' 인구 중 취업비희망자 전 연령대에서 증가

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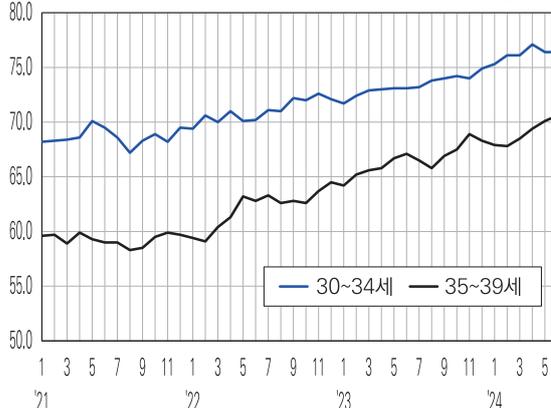
20대 후반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는 주로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위주였다. 반면,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특히 여성 20대 후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진다.

30대 취업자는 9.1만 명 늘었다. 취업자 변동은 인구효과와 무관하게 나타났다. 이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30대 후반을 중심으로 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늘면서 30대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한편, 30대 남성 취업자는 5천 명 감소했고 고용률도 감소했다. 여성 취업자가 9.6만 명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30대 남성 고용은 여성 고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평가

인구효과로 20대 취업자 감소

〔그림 3〕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0대 여성 경제활동참여 증가

할 수 있다.

30대 여성 취업자는 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했다. 공공행정, 전문과학, 정보통신업 순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컸다. 30대 남성 취업자는 주로 도소매업, 운수창고업에서 감소했다.

40대는 상반기 취업자가 8.2만 명 감소했는데, 대부분 인구효과에 의한 것이다. 인구 감소폭이 취업자 감소폭에 비해 크기 때문에 전체 고용률이 감소하지는 않았다. 취업자 수 변화 요인을 분해한 결과는 성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모든 요인에 의해 취업자가 감소했다. 여성은 인구효과를 제외하면 취업자가 늘고 있다. 30대와 마찬가지로 여성 노동시장 상황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았다.

50대 인구는 70.9만 명, 취업자는 43.1만 명 증가했다. 인구효과에 영향을 받았다. 인구효과를 제외한 취업자 수는 2분기에 감소로 전환됐다. 상반기 고용률도 0.1%p 감소했다. 과거에는 50대의 고용 증가폭이 60대에 육박했던 만큼 현재의 50대 고용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고용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 일자리사업 영향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2024년 상반기에도 이러한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인구효과에 의해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고 직접일자리사업 종사자로 간주할 수 있는 65세 이상 임시직 공공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관련 취업자도 증가했다.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취업자 증가폭, 안정적인 고용률 증가세, 실업률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진출이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층 고용 상황은 성별로 상이하다. 남성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은 인구효과에 의한 것이다. 반면, 여성은 인구효과를 제거하고도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 65세 이상 임시직 공공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여전히 크게 늘고 있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다.

4. 상용직 증가폭 둔화

2024년 상반기에는 상용직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2023년 상반기 상용직 증가폭이 52.4만 명이었던 반면, 2024년 증가폭은 24.5만 명에 그쳤다. 상용직 변화와 다르게 임시직은 크게 늘었다. 건설업 비중이 높은 일용직은 감소세를 더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가 특징적이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를 업종에 따라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상용직 증가폭이 대폭 줄었다. 2023년 상반기 20만 명에 이르던 상용직 증가폭이 2024년에는 0.7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고령층 상용직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그 외 연령대에서는 고용 규모가 줄었다. 숙박음식점업, 건설업에서도 상용직 증가폭이 축소됐다. 반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서비스업 상용직은 장기간 증가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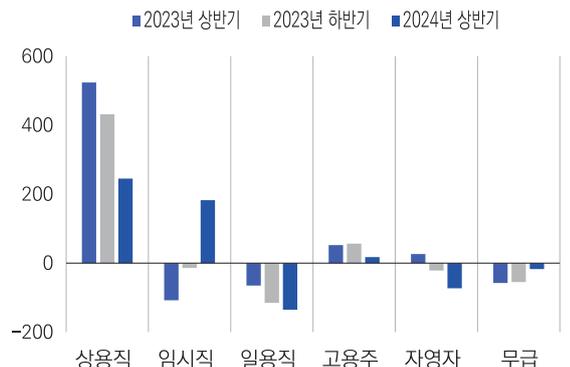
임시직은 다양한 산업에서 증가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간병인력이 다수 포함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임시직이 가장 많이 늘었다. 숙박음식점업 임시직도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고, 건설업과 제조업 임시직도 늘었다.

일용직은 건설업,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에서 주로 감소 중이다. 건설 및 파견인력 감소의 영향일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3만 명이 감소했다. 도소매업, 농림어업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 2023년 사업자 폐업 신고는 98만 건에 달했는데, 이는 2006년 통계 집계 후 가장 많은 건수이다. 늘어난 폐업의 영향이 자영업자 감소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큰 변화가 없었다.

5. 제조업 고용 둔화

제조업 취업자는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3.6만 명, 4.9만 명 증가했다. 제조업 고용의 성장보다는 지난해 취업자가 감소한 기저 영향이 크다. 계절조정 취업자 수도 보아도 2023년 취업자 감소 규모를 회복한 정도에 그쳤다. 고용보험 행정자료나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도 제조업 고용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글로벌 IT 활황에 힘입어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호조를 보였지만 제조업 고용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제조업 내 세부 업종 중 고용 증가세를 이어간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과 자동차 제조업이다. 기계장비, 전기장비, 금속가공제품, 고무·플라스틱제품,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등은 전년동월대비 고용이 감소하거나 증가폭이 축소됐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과 의료, 정밀기기 제조업 고용 증가세가 둔화됐고,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고용도 지난해부터 감소했다. 전자제품 제조업은 업황에 따른 고용 변동이 적은 업종으로, 상반기 반도체 생산 및 수출 호조에도 고용은 부진했다.

제조업 경기는 하반기에도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통신산업 품목과 자동차 수출 증

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한국무역협회, 2024), 조선과 반도체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연구원, 2024). 그러나 하반기 제조업 고용도 성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하반기에도 제조업 경기 호조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6. 건설업 고용 부진 심화

건설업 취업자는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3만 명 증가했으나, 2분기에는 3.6만 명 감소했다. 계절조정 건설업 취업자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하여 6월 건설업 취업자는 1월보다 약 14.4만 명 줄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고용 변동은 이전과 다른 특징이 있다. 최근 건설업 취업자 수는 장기 추세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취업자 수 변동성도 과거에 비해 크다. 건설업 상용직 감소는 고용보험 행정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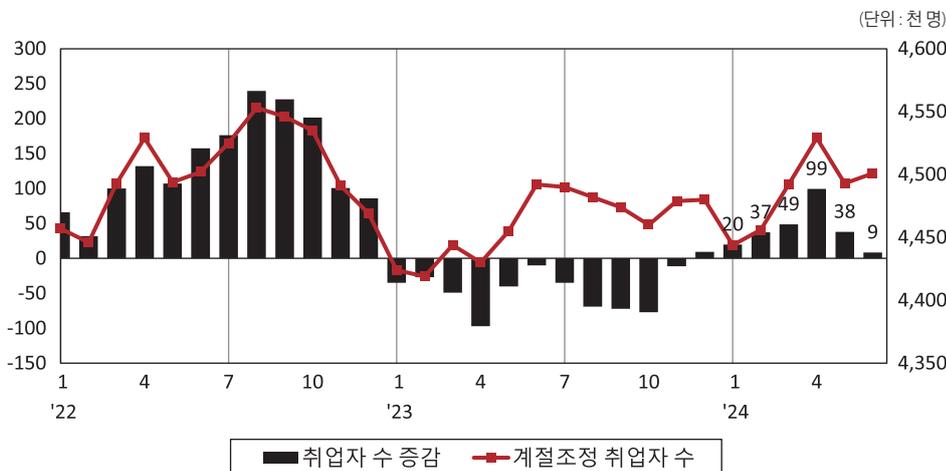
상반기 건설업은 상용직 감소에 일용직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전체 취업자 감소폭이 점차 확대됐다. 건설업 상용직 감소는 2016년 3월 이후 처음 나타났다. 일용직은 2021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건설업 신규 취업자 수는 상용직이 약 3만 명, 일용직이 약 2만 명 감소했다. 과거 신규 취업자가 일용직 위주로 감소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제조업 고용 부진 지속

제조업 경기 호조에도
고용 반등 불투명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폭 확대

[그림 5] 제조업 취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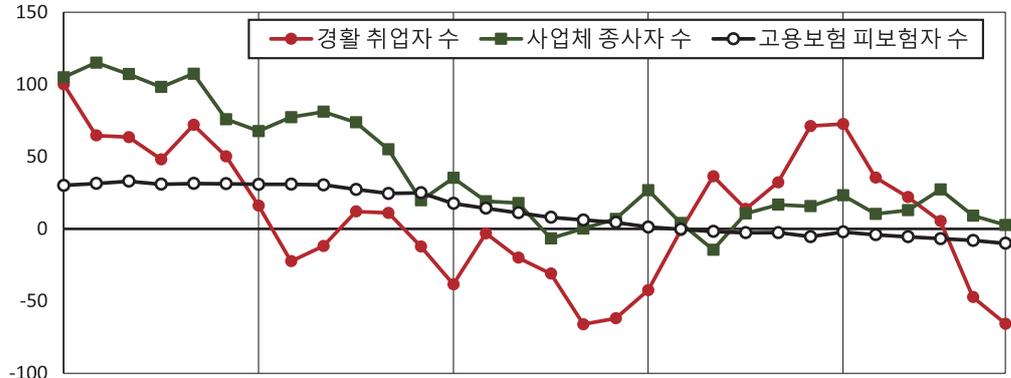


주: 취업자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6] 건설업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LS.

**고급리 및 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업 고용 전망 불투명**

건설업 고용은 하반기에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건설사 2분기 실적은 고급리, 시공비 부담 증가의 영향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는 하반기에 감소 전환하고, 건설 수주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건설산업연구원, 2024). 건설업 취업자 감소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채용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7.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 둔화

2024년 상반기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20.6만 명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2023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음식숙박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기 때문인데, 타 업종은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도소매업은 취업자가 2.9만 명 감소했는데, 2023년보다 취업자 감소폭이 줄었다. 소매업 취업자는 장기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도매업 취업자 증가가 이를 상쇄했다.

운수창고업은 2024년에도 고용이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배달 및 분류 관련 임시직 위주로 고용이 증가했다면, 현재는 운전·운송 관련 상용직 취업자가 늘었다.

음식숙박업은 상반기 2.6만 명 증가했다. 대부분의 취업자 증가가 2분기에 나타났다. 음식숙박업 취업

자는 임시직 위주로 증가했고, 자영업자는 감소했다.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 위주의 증가였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는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6.4만 명 증가했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5.5만 명이 증가했다. 다만, 임시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고, 고용보험 행정통계와 사업체노동력조사상 고용은 둔화되고 있어서 과거만큼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취업자

〈표 3〉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서비스업 전체	465	323	206
- 도소매업	-54	-20	-29
- 운수창고업	-30	9	55
- 음식숙박업	164	65	26
- 정보통신업	54	59	64
- 금융보험업	13	4	-4
- 부동산업	-11	-25	-19
- 전문과학기술	73	66	55
- 사업서비스업	-4	20	-51
- 공공행정	25	25	50
- 교육서비스	10	-22	-37
- 보건 및 복지	173	114	89
- 예술, 스포츠, 여가	37	23	11
- 협회, 기타개인	15	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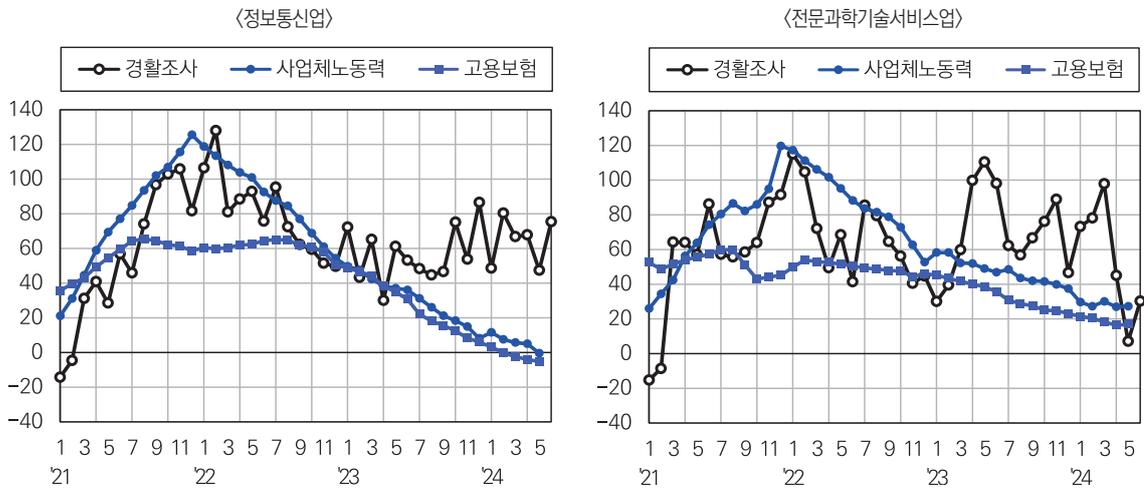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음식숙박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둔화**

**정보, 전문과학분야 고용
증가세 지속**

[그림 7]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고용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는 상반기 내내 감소했다.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위주로 감소했고 40대, 50대 중장년층 취업자의 감소도 컸다. 제조업, 건설업 등 전방산업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산업의 고용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공공행정 취업자는 상반기에 5만 명 증가했다. 2023년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됐다. 2023년 이래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작년보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고령층 위주로 이루어진 상반기 고용 증가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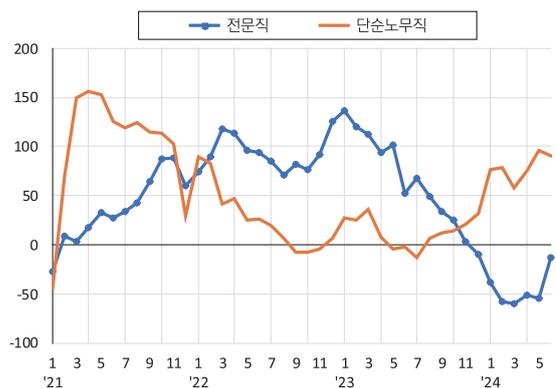
교육서비스 취업자는 상반기에 3.7만 명 감소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서비스 수요 위축의 영향이 크다.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교육보다는 사교육 부문의 변화로 보인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8.9만 명이 증가했다. 전체 서비스업 중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지만, 지난 4년간 나타난 매년 10만~20만 명 수준의 증가폭에는 미치지 못한다.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고령층,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보건업 고용은 전문직 위주로 감소했다. 전문직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2022~2023년에 큰 폭으로 증

[그림 8] 직종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가한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감소

III. 2024년 하반기 및 연간 고용 전망

올해 노동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 본원을 포함한 대부분 기관들의 기본 견지는 유사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 등 경기 하방요인이 있지만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본원은 지난해 12월, 2024년 상·하반기 각각 25만 명과 26만 명, 연간으로는 25.7만 명 수준의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다.

1분기까지는 이러한 전망이 대체로 실현되는 듯했으나, 2분기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5월에는 약 3년

만에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 이하로 떨어졌고 6월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 상당 기간 지속된 노동시장의 강한 반등세가 약해졌다.

본원은 최근 변동성이 컸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고용 전망을 수정한다.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과 실적치,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 전망을 수정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공한다.

**2024년 연간 취업자수
약 18만 명 증가 전망**

2024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약 18.2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중 급감한 취업자 증가폭은 건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부진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그중 건설업 고용은 하반기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규공사 위축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인한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회복세를 견인해 온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 전망도 불투명하다. 고령층을 제외한 대부분 연령대의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의료과업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 6월 반도체 수출액이 전월대비 50.9% 증가한 134.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제품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전망산업 전 품목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제조업 고용의 경기동행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대면 서비스업도 부진한 상황에서 쉽사리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은 실질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져 민간소비를 위축시키

므로 금리 인하가 실현되지 않는 이상 대면 서비스업 고용 규모는 확대되기 어렵다.

하반기 수정된 전망치 14.4만 명 달성을 위해서는 6월 대비 월 5만 명 수준의 취업자 반등이 필요하다. 2분기 취업자 증가폭 감소에는 5월 조사주간 중 휴일 포함, 6월 폭염 등 일시적 요인이 있었다.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이후 고용은 반등할 여지가 충분하다.

다만, 거시경제적 하방 위험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고용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민생 개선과 고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성장주도 산업의 국내 산업연관을 확대하고, 내수 활성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건설업, 도소매업 등 고용 부진이 예상되는 업종은 고용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근로자의 전직지원 및 생계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표 4> 2024년 하반기 및 연간 고용 전망

(단위: 천 명, %)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취업자	28,230	28,603	28,416	28,449	28,747	28,598
(증가율)	1.3	1.0	1.2	0.8	0.5	0.6
(증감수)	372	283	327	220	144	182
실업률	3.0	2.4	2.7	3.1	2.6	2.9
고용률	62.2	62.9	62.6	62.5	63.0	62.8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참고문헌

- 산업연구원(2024),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KIET 경제산업 전망』 2024-01(1).
-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24), 「2024년 하반기 건설경기전망」, 세미나 자료집.
- 한국무역협회(2024), 「2024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TRADE FOCUS』 26호.

※ 본 「KLI 고용·노동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